

## ‘옥화로’ 대영박물관 소장 한국의 美 세계에 알려...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17>

### 제18호 옥장 김 응철씨

2000년 12월, 설립 200년이 훨씬 넘는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에 자그마한 사건 하나가 터졌다.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이곳에 경기도의 장인 한 명이 만든 전통공예품 한 점이 터를 잡은 것.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玉匠) 김응철씨(62·안산시 와동)의 ‘옥화로’가 영구소장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는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대표하는 역사적 근거이면서 동시에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명제에 참다운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됐다.

보통의 옥보다는 비교적 강도가 약한 옥을 사용해 불에 상하지 않게 만들어진 옥화로는 한국적 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테두리든 모서리든 곡선으로 이뤄진 틀이 그렇고 검은색 빛을 내며 은은함과 고풍스런 미를 발하는 것 또한 그렇다.

“한국의 옥은 중국의 그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일단 눈에 확 띄는 것은 중국의 옥이지만 싫증나지 않고 질박한 맛을 풍기며 오래가는 것은 한국의 옥이죠. 기교를 부리지 않고 곡선의 아름다움과 소박한 맛을 내는 것, 그것이 한국의 미(美)입니다.”

일석(一石)이란 호를 가진 김씨는 돌처럼 단단한 근성과 고집, 한결같은 마음을 지녔다. 중학교에 다닐 무렵인 열다섯살때부터 석(石)공예에 손을 댄 것이 60세가 넘는 지금까지, 무려 50여 년 가까이 한 길을 걷고 있으니 그 애착과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여기에 그는 겸손과 장인으로서의 정신이 남다르다. 그 만큼 해왔으면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 적당히(?) 해도 손색이 없을 터. 명성을 얻어 쉽게 쉽게 생계를 꾸려가도 무난할 듯 보이지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꺼린다. 바로 자만을 경계하기 때문.

“장인이라는 자존심은 단순한 이름 값이 아닙니다. 스스로 ‘장인’이라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장인이 될 수 없죠. 그저 묵묵히 내 할 일만을 생각하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평생도록 내 업(業)만을 고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관심은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자만심을 갖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김씨는 여섯살이 되던해 한국으로 건너온다. 서울에 터를 잡고 여의치 않은 부모 밑에 자라났지만 어렸을 적부터 밝은 성격 탓에 이곳 저곳을 기웃거렸다.

그러던 중 중학교때 우연히 석공예를 접하게 된다. 그때만해도 과외나 특별한 여가거리가 없던 때문이라 우연히 접하게 된 석공예는 그에게 큰 매력덩어리로 다가왔다.

첫 스승이라 할 수 있는故 권세욱씨를 만나 돌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이후 임정현씨의 사사를 받아 보석공예와 옥조각기술 등을 익혔다.

그가 본격적으로 옥을 다루던 60년대 초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한국에는 옥의 원석이 발견되지 않았다. 때문에 옥공예는 점차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광복과 6·25를 겪고 근대화의 바람을 타고 건설 붐이 일 무렵 우연히 춘천에서 옥이 대량으로 발굴된다. ‘춘천옥’이란 말을 한

번쯤 들어 보았다면 그 이름의 유래를 짐작할 수 있을 것. 다름아닌 춘천에서 옥의 원석이 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옥의 원석이 있다는 기록은 전해졌지만 그때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옛지명과 그 당시 지명의 차이, 혹은 명확치 못한 기록때문이지요. 옥의 원석이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의 석공예 대부분은 자수정에 의존한 것이 많았습니다.”

옥은 동양문화권에서 특히 발달돼 있다. 돌 중에는 특이하게 보석류로 취급됐을 뿐 아니라 음양오행의 오덕인 인(仁)·의(義)·지(智)·용(勇)·각(角)을 상징하는 장신구로 쓰여 왔다. 또 방위신에 예(禮)를 베푸는 예기(禮器)를 비롯해 사회계급의 신분을 구분하는 패식(佩飾)과 악기인 옥경(玉磬) 및 약재, 의료용구 등으로도 사용됐다.

옥은 주로 중앙 아시아의 호우탄 지방 하상에서 채취되며 중국에 많이 공급된다. 중국에서는 신석기시대의 베이징 문화를 비롯해 하모도 문화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공예품 중 옥공예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청동기 유적에 발견된 옥석공예품 등에 조형곡옥(造型曲玉)이 나타나고 문헌자료 중 ‘후한서 현토조’와 ‘삼국지위지동이전 현토조’ 등에 옥갑(玉匣)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그 역사를 짐작케 한다. 또 조선시대의 별전 ‘경국대전’의 경공장(京工匠)에 상의원 소속 장인 중 옥장을 10명 두었음을 밝혀 옥공예가 왕실 공예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옥이 왕실에서 사용됐음을 말해주는 기록은 여기저기서 눈에 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금과 은, 주, 옥을 민간이 쓰지 못하게 하였으며 조선시대에 접어들어서도 백성들에게는 옥의 사용이 금지됐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옥공예품은 왕족계열과 특수계층을 위한 귀한 것이었다.”

“옥의 귀함은 전해내려오는 기록문서, 혹은 구전 설화 등에서 단번에 알 수 있죠. 북을 불러오고 인체에 이롭다는 이유가 옥의 소중함을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때는 금보다 더욱 값이 나가기도 했죠.”

옥은 재질의 특성상 가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성분이 불규칙하게 합성돼 있어 충격을 받을 때 일정하게 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때리거나 쪼을 수가 없고 특별히 제작된 도구로 꾸준히 갈아 내야 한다. 구멍을 뚫을 때나 홈을 팔때, 자르는 것 역시 단번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을 지속적으로 깎아 내린다.

김씨가 제작하는 옥공예품은 옛스런 맛을 전하는 것부터 현대풍 줄까지 실용성과 고풍미를 접목하고 있다. 반지나 은장도, 주막, 향꽃이 등 종류가 다양하며 비교적 ‘가공’보다는 원석의 맛을 살리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

“보통 제작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잘 모르죠. 때론 몇 달 길게는 몇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수작업이기때문에 그때 그때 손이 가는 대로 제작해요. 지금도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수도룩 합니다. 완성품으로 태어나기 위한 제 자식들이죠.”

김씨는 요즘 요가로 체력단련 중이다. 끊임 없는 작업으로 몇 년전 무릎관절염을 앓은 뒤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 ‘몸이 튼튼해야 마음이 건강하고 스스로 하는 일 또한 건전하다’는 그의 말은 꼭 옥의 특성과 연관 짓지 않더라도 현대인들이 귀담아야 할 듯 싶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안으로 속을 투실히 하는 그의 삶이 바로 옥이 아닌가 한다.

/이연섭·박노훈기자 nhpark@kgib.co.kr  
사진/원지영기자 jwon@kgib.co.kr



옥돌공예 50년 “자만심, 스스로 경계”

청동기시대부터 옥 공예품 사용

조선시대 이르러 왕족만의 보석으로



#### 옥에 관한 옛이야기

### 玉으로 만든 나비...

### ‘영원한 사랑’의 증표

‘군자(君子)의 덕(德)은 옥(玉)에 비할 수 없으니, 부드럽고 따사로우며 광채가 나는 것은 인(仁)이요 짜임새가 고르면서 굳은 것은 지(智)이며 깨끗하면서 깎이지 않음은 의(義)이고 굳은 것을 싫어하고 차라리 부러지는 기개가 있으니 이는 용(勇)이라 할 수 있다. 또 안으로 수렴하며 청결하니 바로 결(潔)의 덕이라.’

-예기 제13장 옥조편 중-

옥의 관한 기록과 이야기 등은 수 없이 전해진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옥에 관한 로맨스적 설화와 옥의 기능성에 대한 일화.

특히 옥이 나비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각별한 낭만적 의미가 부여되며 북을 부른다는 속설이 있다. 이는 한 젊은이가 아름다운 나비를 열심히 쫓다가 어느 부자 관리의 정원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전설에 유래한다. 정신없이 나비를 쫓던 젊은이는 그만 높은 관리의 집단을 넘게 되는데, 남의 집을 침입했다는 죄로 벌을 받는 대신 일이 묘하게 진행돼 집 주인의 딸과 결혼을 한다. 이때 신랑은 신부에게 영원히 사랑한다는 증표로 옥나비를 선사했다.

또 다른 전설로는 옛날 고관때 딸과 동네 청년과의 이야기. 선비집으로 시집을 갔으나 시댁이 하도 가난해 끼니를 제때에 채우지 못했던 고관때 딸이 친정에서 보낸 찹떡을 급히 먹다 체해 사망했다. 사망 할 때 손에 옥가락지를 끼고 있어 이를 노린 동네 청년은 매장된 시신을 파헤친다. 당시 옥가락지는 쌀 7섬의 가격. 하지만 손에 끼 옥가락지는 좀처럼 빠지지 않았고 방법을 강구하던 청년은 돌로 손을 내리쳤다. 이때, 손에서는 피가 나고 죽은 시신이 살아났다. 체해 숨통이 막혔던 것이 피가 나자 트인 것. 옥반지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대표적인 전설이다. /박노훈기자 nhpark@kgib.co.kr

